

# 한국의 원어민 일본어 교사 수업 실태에 관한 연구

- 외국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아이자와 유카\*

차례

- I. 서론
- II. 본론
  - 1. 교사의 선발
  - 2. 교사의 언어
  - 3. 교사의 수업 방법
- III. 결론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고등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2002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종전의 일본어 학습이 문법성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과는 달리 의사소통 능력 특히, 상황에 맞는 일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 강조되고 있다.<sup>1)</sup>

그러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 원어민 교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육의 경우, 97년 IMF 이전에는 856명이나 되는 원어민 교사가 학교 현장 및 한국인 영어 교사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sup>2)</sup>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진 가운데 그 필요성과 유익성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원어민 교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기초조사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어 교육에서 입증된 바 있는 원어민 교사의 장점을 일본어 교육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 전공

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어민 수업의 질적인 향상과 그것에 따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일본어 교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일본어 교사에 관한 1차적인 기초 조사로써 원어민 교사의 수업 실태를 파악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원어민 수업과 자질 있는 원어민 교사 선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중 외국어 고등학교의 원어민 일본어 교사 및 한국인 일본어 교사, 학부모, 일본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 및 인터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로서는 원어민 교사를 대부분 채용하고 있다는 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는 전국 20개 외국어 고등학교 가운데 일본어과가 있는 15개교 중 14개교에서 근무하는 총 21명의 원어민 일본어 교사와 10개교 총 681명의 일본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부모 설문은 인천 소재 A외고의 일본어과 학생의 학부모 총 67명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뷰는 14개교에서 근무하는 총 22명의 한국인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각 문항 해석에 필요한 도표를 만들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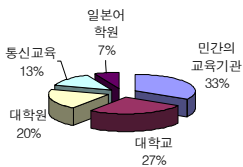
### 1. 교사의 선발

#### 1) 일본어 교육 관련 경력 및 학습 경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원어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언어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원어민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일본

어 교육에 있어서도 지적되고 있다.<sup>3)</sup> 그러기 때문에 일본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에 있어서도 일본어 교육을 전공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본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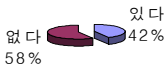
설문 결과,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로서 일본어 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지만 일본어 교육에 관한 학습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65%<sup>4)</sup>에 달했다.



<그림 1> 원어민 교사가 학습한 기관

인 교육기관 명칭을 밝혀 준 교사의 설문 결과로 보면 민간의 교육기관이란 모두 일본에 소재하는 기관들이었다. 이 결과에서 전체의 33%의 교사가 일본에 있을 때 이미 일본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건너와 일본어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교육에 관해 학습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주로 어떤 기관에서 공부를 했는지 알아본 결과 민간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교사가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27%, 대학원 20%, 통신교육 13%, 일본어 학원 7%의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여기서 구체적인



<그림 2>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

교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42%의 교사가 소지하고 있고, 58%의 교사는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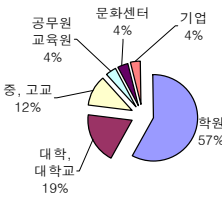
EPIK의 고용등급별 자격 기준에서 보면,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조건 중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에 관한 언급이 있다. 이 기준에서는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 또는 TESOL/TEFL<sup>5)</sup> 등 영어교육 자격증 소지와 경력 및 석사학위의 유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 교육의 경우도 올해 2003년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원어민 교사 초청 계획에서는 학사 학위와 함께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채용될 계획이었다.<sup>6)</sup> 설문 결과에서도 원어민 교사 선발 때 필요한 조건으로 한국인 일본어 교사가 가장 많이 선택한 조건이 ‘교사

자격증 소지<sup>7)</sup>였던 것으로 보아 교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어민 교사 선발 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원어민 교사들 중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일본어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인 85%의 교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일본어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원어민 교사들의 채용이 다른 곳에 비해 학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이 대학교 관련 부분인데 19%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여기에는 전문대학, 대학부설 외국어교육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중·고교가 12%, 공무원 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기업이 각각 4%로 조사되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일본어 교육 관련 경력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전의 일본어 교육 관련 경력 연수를 알아본 결과,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의 71%에 달했고 2년 미만은 29%로 나타났다. 2년 이상의 경력은 EPIK의 자격 기준에서도 1등급에 해당되는 자격이다. 따라서 2년 이상의 경력자가 많다는 것은 일본어 교사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며, 앞으로도 경력을 중시하는 선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2) 교사의 선발 기준

다음은 외국어 고등학교 측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원어민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 1>는 원어민 교사 선발 시 학교 측이 어떠한 자격을 가진 교사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전체의 86%에 달하는 학교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이면 누구나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지에 개별적으로 기입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 기준은 원어민 교사 채용의 최소한의 자격이며, 가능하다면 일본어 교육 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원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lt;표 1&gt; 원어민 교사의 선발 기준

| 선발 기준                         | 학교 수 | 비율  |
|-------------------------------|------|-----|
| 전공 관계없이 대학교를 졸업한 원어민이면 누구나    | 12   | 86% |
|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어 교육 경력이 있는 원어민   | 1    | 7%  |
| REX프로그램 <sup>9)</sup> 의 자격 조건 | 1    | 7%  |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예외 없이 원어민 일본어 교사가 채용되고 있지만 그 채용 조건에 관해서는 학교 마다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통일된 선발 기준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되는데로 원어민 일본어 교사를 정식적으로 채용할 계획<sup>10)</sup>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EPIK와 같이 더 다양하고 명확한 선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사의 언어

원어민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자연스러운 원어 사용의 특성을 살리는 교수법이라 하면 우선 직접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일본 국내에서는 매개어<sup>11)</sup>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법에 의한 교수법이 전통적<sup>12)</sup>이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순수한 직접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sup>13)</sup> 한편, 외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학습자의 모어(母語)를 사용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sup>14)</sup>, 모어 사용이 초급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 되어 있다.<sup>15)</sup>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주목하여 교사의 일본어 사용 실태와 더불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과연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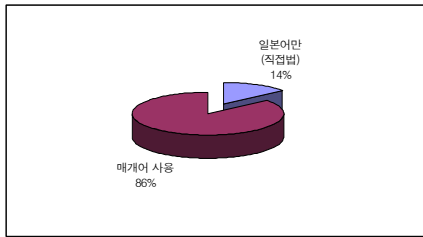
### 1) 수업 중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

원어민 일본어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매개어에 대해서 연구한 오쓰카(大塚)·와카쓰키(若月, 2001)는 매개어를 사용했을 경우 학습자에게 볼 수 있는 효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 ①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말하는 경향이 있다.
- ② 어휘 및 문법 사항 습득이 빠르다.
- ③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sup>16)</sup>

또한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8%에 이르는 원어민 교사가 수업에서 매개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일본어 교사의 경우, 수업 시간에 일본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는 교사가 12명(57%)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일본어만 사용하는 교사는 3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그 외 대부분 일본어를 사용하는 교사는 5명(24%),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1명(5%)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원어민 교사의 매개어 사용 여부

이 결과를 매개어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면, 수업에서 매개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무려 전체의 86%나 되었다(<그림 4> 참조). 전술한 오쓰카·와카쓰키(2001)의 연구 논문에서는 매개어 사용 교사가 77.8%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가 대학교나 대학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보다 매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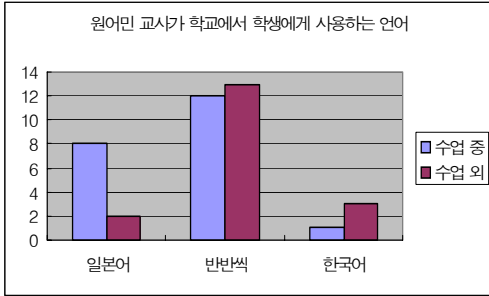
이는 교육 현장이 중등교육 단계의 고등학교이므로 일본어만 사용할 경우 수업 진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개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제로 설문 응답 내용에서 만약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떠들어서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응답한 바 있다.<sup>18)</sup>

## 2) 수업 외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

원어민 교사는 수업에서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에서도 원어민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학생이나 한국인 교사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원어민 교사들이 수업 외에서 학생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일본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교사가 전체의 62%(13명)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한국어만 사용하는 교사로 14%(3명), 기타<sup>19)</sup> 14%(3명), 일본어만 사

용하는 교사는 10%(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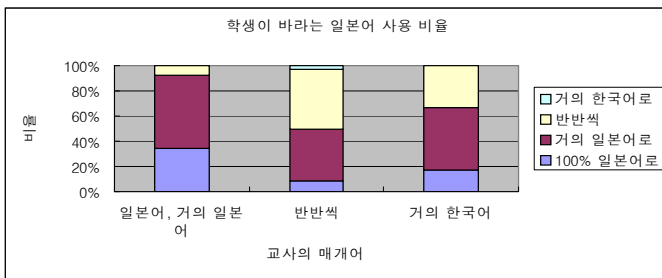


<그림 5>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사용하는 언어

교사가 수업 중과 수업 외에서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대신 수업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교사 수(8명)가 수업 외에서는 2명으로 75%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반대로 수업에서 거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1명)가 수업 외에서는 3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5> 참조). 이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대하는 교사의 언어 사용 방식이 수업 외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는 학교 내 어디에 있어도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면에서 좋은 효과를 주어야 하고, 또한 오히려 수업 외에서 학생을 만날 때가 더욱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교사는 수업 외에서도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3) 교사의 한국어 능력과 그 필요성

일본어 교사에게 있어서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학습자의 문제점이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의 장점도 입증된 바 있다. 대학의 경우 원어민 일본어 교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도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도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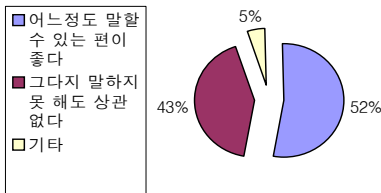


<그림 6> 학생이 바라는 일본어 사용 비율

우선, 학생들이 회화 수업에서 원어인 교사가 어느 정도 일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교사의 매개어에 따라 분류하였다(<그림 6> 참조).

교사가 수업에서 대부분 일본어만 사용하는 4개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100% 일본어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비율(34%)로 나타났고, 한국어와 반반씩 사용하기를 바라는 학생은 상당히 적은 비율(7%)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가 수업에서 반반씩 사용하는 7개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일본어만 사용하기를 바라는 학생이 9%에 그쳤고, 오히려 반반씩 사용, 즉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학생(47%)이 가장 많았다. 또한, 거의 한국어만 사용하는 1개 학교의 학생들은 100% 일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학생(17%)과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학생(50%)이 모두, 교사가 반반씩 사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원어인 교사가 수업에서 얼마나 일본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학생의 듣기, 말하기 능력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원어인 교사의 특성인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여부가 학생의 일본어 학습에 대한 적극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 학생들은 더 많은 일본어를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며, 이는 교사가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학생들도 그에 맞추어 따라 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교사가 거의 한국어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업 진행상 큰 문제가 없는 한 교사는 가능한 매개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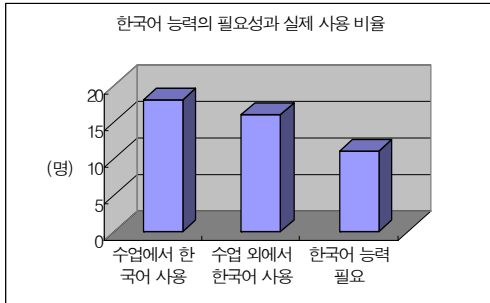
<그림 7> 원어인 교사의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 (원어인)

다음으로 원어인 교사의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사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았다. 그 결과, 52%의 교사가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43%의 교사는 한국어를 잘 못 해도 상관 없다고 대답하였다(<그림 7> 참조).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11명(52%)의 교사들에게 한국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가장 많았던 의견은 학생과의 의사소통(40%)을 이



유로 뽑았고 다음으로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 학생을 위해서’가 20%, ‘수업 시간에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20%, ‘일반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가 16%, 기타<sup>22)</sup>가 4%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과 실제 사용 비율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설문 결과, 실제로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도 한국어를 그다지 필요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 이유

에 대해서 몇 명의 교사가 설문지에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영어와 같이 학생의 어학적 기초가 있을 경우와 달리 제2외국어인 일본어의 경우는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사에게 한국어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 학생들이 일본어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큰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 사용함에 따른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단점도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에게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할 수만은 없다. 교사가 한국어를 사용하든 사용 안 하든 장점과 단점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위하여 내신 성적이 중요한 고등학교의 특수한 현실과 한 학급의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어민 교사는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사 스스로가 확실한 교수 목적과 방법을 선택하여 한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와 장소를 알맞게 가려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원어인 교사의 역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길의 하나가 될 것이다.

## 2. 교사의 수업 방법

원어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중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이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문법을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고, 원어인 교사가 회화를 가르치는 체계는 학생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학습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 면에서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어인 교사가 어떠한 수업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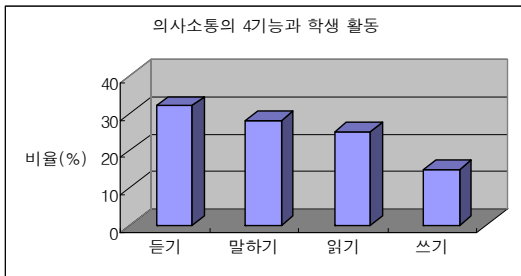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원어인 교사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수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의사소통 기능으로 본 학생 활동

회화 수업은 의사소통 기능의 4기능 중 듣기와 말하기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원어인 교사 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활동 내용이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학부모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부터 알아보겠다. 원어인 교사 수업을 받으면 어떤 부분의 일본어 능력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로, 61.2%(41명)의 학부모가 듣기 측면에서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8.8%(26명)는 말하기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9> 의사소통의 4기능과 학생 활동

다음으로 원어인 교사에게 학생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4기능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듣기 활동(32%)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말하기(28%), 읽기(25%), 쓰기(15%) 활동의 순서로 조사되었다(<그림 9> 참조).

이는 수업에 있어서 학생이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읽기나

쓰기 활동보다 많다는 점과 학부모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어민 교사 수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생 설문에서 원어민 교사 수업을 받고 어떤 부분의 일본어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말하기 실력이 가장 좋아졌다고 응답한 학생(46%, 314명)과 듣기 실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학생(45%, 309명)이 대부분이었고 읽기와 쓰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활동 빈도가 높은 읽기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학생에게 교재를 읽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원어민 교사 수업으로는 읽기 활동보다 듣기 또는 말하기 활동을 많이 하는 수업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연습 형태로 본 학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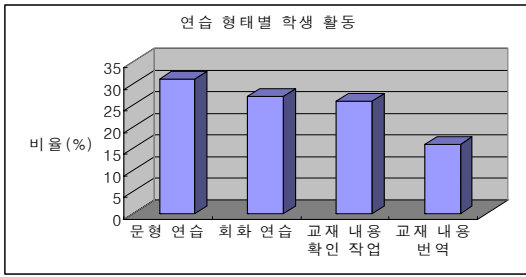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업 시간의 학생 활동을 다음 네 가지의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 회화 연습 : 두 명 또는 몇 명 학생이 짝이 되어 회화 연습을 한다. (롤 플레이 등)
- ② 문형 연습 : 여러 가지 문형 연습을 한다. (괄호 넣기, 바꿔 말하기 등)
- ③ 교재 내용 확인 작업 : 교재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내용에 대한 질문, 내용을 확인하는 쪽지 시험 등)
- ④ 교재 내용 번역 : 교재 내용을 번역한다.

설문 결과, 학생 활동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문형 연습(31%)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회화 연습(27%), 교재 내용 확인 작업(26%), 교재 내용 번역(16%)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 참조).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연습 활동은 정확성을 위한 연습과 유창성을 위한 연습<sup>23)</sup>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결과에서 가장 많은 교사가 택한 문형 연습은 정확성을 위한 연습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실 활동의 하나이다.<sup>24)</sup>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문장 레벨의 문형 연습보다는 담화 레벨, 즉 실제 의사소통 장면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정확성을 위한 연습도 필요하지만 원어민 교사의 특성을 살리는 수업 방식으로는 실제 의사소통 장면에서 필요한 유창성을 위한 연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10> 연습 형태별 학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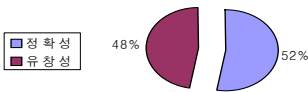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존재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일본어 교사가 정확성에 중점을 둔 수업을 하고, 그 터 위에 원어민 교사가 유창하게 말하는 회화 연습 중심의 수업을 하는 패턴이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세 번째로 많은 교재 내용 확인 작업이란 교재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활동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것이 독해 수업이라 할 수 있다. 회화 수업에서도 학생이 교재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교사가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어민 교사 수업에서는 가능한 유창성에 중점을 둔 회화 연습이 주된 학생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원어민 교사 수업에서 학생 활동은 유창성을 기르는 회화 연습 즉,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모든 교사가 유창성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이 유창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하여 지도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에도 정확성을 중시하는 교사가 52%(11명), 유창성을 중시하는 교사가 48%(10명)로, 의견이 반반씩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원어민 교사 수업에서는 듣기, 말하기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



<그림 11> 정확성과 유창성 중시 여부

법으로서는 아직까지 순수한 회화 연습보다 문형 연습이나 교재 이해 확인 작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실생활 속의 유창성 중시의 교육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향후 원어민 교사 수업의 방향성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Ⅲ. 결론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시의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어 온 문형 연습 중심, 독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장면에서 쓸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중시의 교육으로 학교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의사소통 신장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의 존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교육에 비해 일본어 교육에서는 아직 원어민 교사의 정식적인 채용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원어민 교사에 관한 연구도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미 영어교육에서 확인된 바 있는 원어민 교사의 장점을 일본어 교육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일본어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효과적인 원어민 수업과 자질 있는 원어민 교사 선발을 위해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교사 선발 기준은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은 일본어 교육 관련 학습 경험 및 경력 면에서는 대부분 교사로서 적절한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적었던 점으로 미루어 원어민 교사 선발 기준에서 자격증 소지 조건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 자격증 소지는 EPIK의 지원 자격으로도 중요시 되고 있으며, 한국인 교사들도 원어민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으로 교사 자격증 소지를 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학사 학위를 가진 원어민이면 누구나 채용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사 자격증 소지 유무를 비롯한 경력 연수나 일본어 교육 관련 학습 경험 유무 등에 대해서도 선발 조건에 포함하여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어민 교사의 매개어(한국어) 사용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일본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학생에게

좋은 학습 동기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교사에게 한국어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학생들의 동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교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문 결과, 현재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 중 매개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무려 86%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일본어 레벨이 일정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원어민 교사에게 한국어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결국 교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잘 인식하여 학생 레벨이나 수업 진행에 맞추어 적절하게 매개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문형 연습보다 회화 연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는 원어민 교사 수업을 통해서 일본어의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의 4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듣기, 말하기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는 교사가 대부분이며, 학생 역시 듣기와 말하기 면에서 실력이 좋아졌다고 답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읽기 활동에 비중을 두는 수업이 비교적 많은 점을 듣기와 말하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활동 방법에 있어서는 문형 연습이나 교재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에 치우쳐 회화 연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존재하는 장점을 살려 한국인 교사가 정확성에 중점을 둔 수업을 하고, 원어민 교사는 실제 의사소통 장면에서 필요한 유창성을 키우는 수업을 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는 지금보다 더 회화 연습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원어민 일본어 교사에 관한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어민 교사 수업에 대한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 범위를 좁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회화 수업 모형 연구나 한국인 교사와의 연결 수업(팀티칭)의 모형 연구 등 원어민 교사 수업의 구체적인 학습 효과와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일본어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注】

-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5 외국어에 관한 교과- (하)」(2002), pp.538-539.
- 2) IMF이후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은 점차 줄어들어 2002년에는 139명만이 채용되었다.(조선일보 2002.6.23)
- 3) 奥田邦男·奥田久子 『1. 序論 日本語・日本語教育・外國語教育 -第二部 外國語としての日本語教育-』(NAFL Institute 日本語教師養成通信講座, アルク, 1987), p.19.
- 4) 정식적인 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경우만 포함시켰다.
- 5)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의 명칭.
- 6) 조선일보 2002.6.23
- 7)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교사가 답하였다.
- 8) 개인지도 경력은 제외했다.
- 9) 일본에서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위해 2년간 해외 중등 교육 시설로 파견하는 외국교육시설 일본어 지도교원 파견사업(外國教育施設日本語指導教員派遣事業)의 명칭이다. <http://fish.miracle.ne.jp/w-marian>
- 10) <http://www.moe.go.kr>
- 11) 언어학습에 있어서 목표언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 학습자의 모어 또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 12) 西口光一 『日本語教授法を理解する本 歴史と理論編』(バベル・プレス, 1995), p.42.
- 13) 高見澤孟 『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2 日本語教授法入門』(アスク, 1996), pp.150-151
- 14) 塩入すみ 「台湾の大學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状と課題—日本語専攻の學科を中心に—」(世界の日本語教育<日本語教育事情報告編>, 日本國際交流基金, 1999), pp.164-165.
- 15) 阿部洋子·横山紀子 「海外日本語教師長期研修の課題 -外國人日本語教師の利点を生かした教授法を求めて-」(日本語國際センター紀要 第1号, 日本國際交流基金, 1991), pp.67-68.
- 16)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모르는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등이다.
- 17) 대상은 한국 내 대학교, 대학, 어학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본인 교사 18명이다.
- 18) 설문 결과, 원어민 교사가 느끼는 문제점 중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전체의 46%로 나타났다. 그 중 '학생의 능력 차이가 커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어렵다'고 답한 교사가 34%, '일본어를 가르치기 전에 학생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답한 교사가 12%였다.
- 19) '학생에 따라 틀리다' 등.
- 20) 水谷信子 『NAFL選書 4・日本語教育の内容と方法-構文の日英比較を中心に-』(アルク, 1989), p.3.
- 21) 大塚薫 「韓國の大學で求められる母語話者教師の役割における考察」(2002年度 春季 國際學術大會 予稿集, 韓國日本學協會, 2002), pp.175-181.
- 22) '상황에 따라 틀리다' 등.
- 23) 정확성을 위한 연습이란 학습항목인 문형이나 표현, 어휘 등을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고, 그 의미·용법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연습이고, 유창성을 위한 연습이란 그러한 학습항목을 실제 의사소통 장면에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습을 뜻한다. 田中望 『日本語教育の方法-コース・デザインの實際-』(大修館書店, 1988), pp.136-137.
- 24) 田中望(1998) 전술서, p.138.
- 25) 國立國語研究所 『日本語教育指導參考書 11・談話の研究と教育 I』(1983), pp.128-129.

## 韓国における日本語母語話者教師の授業の 実態に関する研究

相澤 由佳

第7次教育課程において強調されてい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重視の教育は、高校日本語教育において実施されてきた文型練習中心、読解中心教育の枠を越え、実際の場面で使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重視の教育へと教育現場を変化させている。そのような中で、学習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伸長に高い効果を期待できる母語話者教師の役割は大変大きいと言える。

しかし、英語教育とは違い日本語教育においてはまだ母語話者教師の正式な採用も活発には行なわれておらず、母語話者教師に関する研究もわずかにとどまっている。すでに英語教育で実証されている母語話者教師の長所を日本語教育においても積極的に取り入れ、学生たち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向上に寄与すべきだと考える。

本研究は、外国語高校に勤務している日本語母語話者教師を中心に授業の実態調査を行うことによって、現場の問題点を把握し、改善すべき方向性を提示していく。

以下は、実態調査の結果見いだされた問題点と改善方法を整理したものである。

第一に、母語話者教師の採用条件においては、外国語高校の場合、最低限大學卒業者であることのみ求められているが、今後は条件をもっと詳細化し、教員免許取得、専攻、指導経歴、韓国語能力、韓国文化の理解などの内容も考慮されるべきである。

第二に、母語話者教師の韓国語使用には長・短所があるため、教師は韓国語を使用するにあたりその点を十分に認識し、生徒の日本語レベルや授業内容に合わせた適切な使用が求められる。

第三に、具体的な授業の方法については、大部分が聞き方・話し方などの会話練習中心で行なわれているが、一部で会話よりも文型練習や読解に片寄っている面が見いだされた。教師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向上のために会話練習中心の授業になるよう努力すべきである。

この研究が今後の母語話者教師による効果的な授業と資質のある教師採用のための基礎資料として活用さ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